

6. 한국 요구르트 젤리. 귀여운 패키지와 독특한 맛으로 인기

도쿄지사

주요내용

▶ 귀여운 패키지와 독특한 맛에 두 번 반하다!

- 한국에서 큰 붐을 일으킨 ‘요구르트 젤리’가 요구르트 병 모양이 프린트 된 귀여운 패키지와 모양으로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감직한 패키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식감과 맛도 좋다는 호평이다. ‘유산균음료 특유의 약간 신맛과 단맛이 맛있다’는 평과 일본산 젤리보다 ‘딱딱한 식감으로 씹는 맛이 있어 간식이나 업무중 간식으로 추천한다’는 등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

▶ KALDI COFFEE FARM에서 판매

- 주로 커피판매 소매업체로 수입식품, 제과재료, 주류를 판매하는 KALDI COFFEE FARM에서 한국에서 히트한 요구르트 젤리를 발 빠르게 수입하여 50g의 젤리 한 봉지를 129엔(세금포함)에 판매 개시하였다. 지난 2월 7일 니혼테레비 아침방송 「ZIP!」에서 요구르트젤리(ヨーグルトグミ)가 소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KALDI 온라인 스텝에 판매 중인 요구르트젤리▶



▶ 슈퍼마켓 트레이드 쇼 한국관 참가

- 요구르트 젤리를 제조하는 한국 업체는 2018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신일본슈퍼마켓협회가 주최하는 슈퍼마켓 트레이드 쇼에도 참가하여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일본에서 유산균이 대체로 초코릿 등 다양한 식품에 첨가되고 있는 추세라 요구르트를 활용한 간식의 인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 수퍼마켓트레이드 쇼에 전시된 요구르트 젤리>



* 참고자료

- livedoorNEWS, 「韓国発の「ヨーグルトグミ」、日本でもブームに！どこで買えるの？」(2018.1.13.)

시사점

- 한국에서 히트한 음식 및 식품이 한국, 동남아시아, 일본 등 국경을 넘어 관심을 끌고 있는 추세이다. 간식류의 경우, 젊은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패키지로 화제를 끄는 것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일본

Japan

7. 인삼을 활용한 건강주스 전문점 등장

오사카지사

주요내용

▶ 일본, “내 건강은 스스로 지키자”

- 초고령화 사회 등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확산되었다.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예방은 올바른 식습관과 직결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은 건강한 식재료와 음식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 인삼, 믹스주스로 재탄생

- 보통의 일본 사람에게 한약재는 ‘몸이 허약하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 특히 어르신’이 복용하고 ‘쓰고 맛 없는 데다 비싸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을 깨고 등장한 것이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젊은 감각의 주스 전문점이다. 작년 11월에 도쿄에 문을 연 ‘파머시스 긴자(FARMACY’S GINZA)’는 인삼, 구기자 등 한약재와 채소, 허브, 약용식물 등을 갈아 주스로 만든다.
- 파머시스 긴자는 총 11개 메뉴 중 3종류의 음료에 대표 한약재로 인삼을 사용하고 몸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음료를 손님에게 추천한다. 인삼과 오렌지, 망고, 파인애플을 섞어 만든 음료는 피로가 쌓인 고객에게, 인삼과 구기자 음료는 원기를 회복하려는 고객에게, 인삼과 과라나 음료는 잠을 깨려는 고객에게 추천한다.

▶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한잔!

- 일본 동양경제는 파머시스 긴자를 찾는 소비자들은 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피곤하여 재충전이 필요할 때, 건강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이용하며, 재방문율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주변에 요가교실, 휘트니스 클럽 등이 많은 곳에 점포를 열어 건강과 음식에 관심이 높은 손님이 찾는 경향이 좋다.

| 주스 전문점 ‘파머시스 긴자’ 판매 음료 예 |



* 사진출처 : 파머시스 긴자 홈페이지(farmacys.jp)

* 참고자료

- 일본 동양경제ONLINE 「先入観を裏切る「漢方ジュースバー」の仕掛け」(2018.02.03.)
- 긴자농원 홈페이지(<https://ginzafarm.co.jp/>)

시사점

- 일본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삼 등의 한약재를 사용한 주스 전문점이 도쿄 긴자에 오픈한 사례는 인삼이 젊은 층에 인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또한, 일본에서 구기자를 시리얼과 함께 먹는 등 건강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인삼과 한약재 등 기능성 농식품을 일본시장에 수출할 경우, 간편하고 건강을 중요시 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